

(주)한국주식가치평가원 신간소개



▶ 도서명 : 보통사람들의 가치투자 성공이야기

▶ 출판사 : (주)한국주식가치평가원

▶ 저 자 : 이호승, 73트랜서퍼, 김서진, 성민우, 석준식 지음

▶ 출간일 : 2018년 4월 20일

▶ 페이지 : 381페이지

▶ 사이즈/두께 : 148*210 / 22mm

▶ 정 가 : 15,000 원 (온라인 서점 13,500 원)

▶ 요약 : 이 책은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 5명 각각의 진솔하고 진지한 가치투자 과정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하지만 진지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마다 개인적인 투자의 목적, 가치투자를 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 자신만의 투자원칙과 성공전략, 실력대로 성공한 종목들과 반면교사가 되어준 일부 실패 종목들, 투자공부 방법, 투자인생의 위기와 기회, 미래 소망 등을 담고 있다.

나 같은 보통 사람들도 주식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가치투자는 나 같은 개미투자자가 하기에 어려운 투자법은 아닌지 고민하고 또한 우려하는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에게, 다섯 명의 보통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년 365일 열심히 돈 벌고 있지만 내 통장은 몇 년째 배고프다.

요즘 보통사람들의 재테크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보통사람들은 제2의 인생, 은퇴 준비를 무엇으로 할까?

당신의 친구, 직장동료의 재테크 성공일화 공개 “나의 재테크 방법은 가치투자입니다.”

- » 내 생각에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치 상승률이 은행이자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안전하게 투자하면 주식은 재테크를 위한 최상의 투자처다. (저자 이호승)
- » 수년 전까지만 해도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은퇴하겠다는 바람이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지금, 내가 하고자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못하는 생활이 싫었다. 투자라는 것도 그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직장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니,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투자라고 여겨졌다. (저자 73트랜서퍼)
- » 주식투자를 통한 자산의 증식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가치투자는 하나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만약 필자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이라면 아마 가치투자 만큼 투잡으로 쓸쓸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일단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본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김서진)
- » 지금도 내가 투자자라는 것을 가장 실감하는 순간은 늘어나는 계좌 잔고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 볼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 북적거리는 매장을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볼 때, 우연히 흘러나온 광고 속 상품을 분석하고 견줄 때, 새로운 제품을 찾아서 사용해보고 난 뒤 기업의 향후 주가 추이를 먼저 떠올릴 때, 나는 내가 투자자로서의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느낀다. (저자 성민우)
- » 필자의 가치투자 목적은 특별히 다른 거 없고, 우선 가족과 지인(知人)에게서 웃는 얼굴을 많이 보는 것, 다음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와 “바다의 도시 이야기”에서 감명 받은 “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것, 끝으로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 베네치아, 카프리 섬을 여행하는 것!!! (저자 Caesar)

독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확실하게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재테크의 방법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확실하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공부, 자산을 늘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을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재테크로 국한한다면 그 답은 오로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확실해야 하므로 주식 가치투자자와 부동산 가치투자이며(여기서 외환, 파생, 기타 다양한 도박은 결격), 빨라야 하므로 답은 주식 가치투자입니다. 자본주의 수백 년 역사상 최고의 연평균 누적수익률을 보이는 투자대상은 원유도 금도 부동산도 아닌, 바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정보와 작전의 진흙탕 싸움이며, 진흙탕 싸움 수준을 벗어난 가치투자자는, 기업분석이나 가치평가 등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입문, 초보 수준부터 베테랑 수준까지 수많은 가치투자자들을 지켜본 제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서에 실린 서로 다른 배경지식과 연륜, 성격을 가진 다섯 명의 보통 사람들의 진솔한 가치투자 이야기가 수많은 좋은 사례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보기에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구어낸 극소수 큰 주식부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보다, 보통 사람들의 진솔한 가치투자 시작과 성공 과정을 읽고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많은 독자들에게 실질적,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지하게(seriously) 다가서는 태도는 그 대상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획득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업 아이템이 되었든, 이성관계가 되었든, 연속적인 승진이 되었든, 부동산 투자가 되었든, 주식 투자가 되었든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 혹은 분야에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직간접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공부도 고민도 없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스스로 투자한다고(명백한 투기, 도박임에도) 자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와 고민을 통해 무장한 수많은 성실한 가치투자자들을 절대로 장기수익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의 성공은 자신의 지식과 고민으로부터 기인하고, 장기적인 투자의 실패도 자신의 지식 부족과 고민 없음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식투자를 진지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보통 사람들의 멋지고 성공적인 가치투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진실된 자신의 스토리를 용기 있게 내어놓은 이 책의 다섯 명 주인공들에게 진심으로 박수와 격려, 그리고 감사를 전합니다.

- 가치투자자협회 부회장 류 중 현 -

책 속에서

그 동안 내 투자여정에 큰 영향을 준 세 번의 큰 수익이 있었고 두 번의 큰 실패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가지게 된 원칙은 세 가지인데,

“첫째, 욕심을 줄이고 까치밥을 남겨 놓아라.”

“둘째, 무서우면 빠져라.”

“셋째, 기웃거리지 마라.” 이다.

→ (38페이지) 첫 번째 가치투자자, 이호승 편

일반적으로 한번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나 다른 전공의 업무로 이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포트를 관리하며 기업에 대한 추적을 오래 하다보면, 마치 내가 여러 개의 회사를 동시에 다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유망한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거나 관여한다는 느낌, 그리고 그의 결과에 따라 얻는 투자수익은, 마치 그들 회사가 내게 자그마한 성과급이나 연봉을 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 (156페이지) 두 번째 가치투자자, 73트랜서퍼 편

전에는 그저 안정적인 월급에 의지하여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흥미롭고 노력하는 것이 즐겁다. 이것이 주식투자, 가치투자를 하기 전과 후의 필자의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에는 필자의 직업과 관련한 분야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부분이 흥미롭고 알고 싶어지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도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도 더 여유로워짐을 느낄 수 있다. 물론 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 (247페이지) 세 번째 가치투자자, 김서진 편

탐욕과 공포는 완전히 극복되기 힘들지만 애써 모른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면으로 응시해야 하기에, 주식시장이 투자의 공간일지 도박판이 될지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린 문제다. 결국에는 선택부터 결정까지 오롯이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때론 참 무섭고 고독하다.

→ (317페이지) 네 번째 가치투자자, 성민우 편

하루하루 (가치투자 계획과 그에 따라올 기대수익으로) 설레고,

하루하루 (혹여나, ‘가치투자로 큰 손실은 보지 않을까?’, ‘내 판단이 옳은 건가?’란 끝없는 질문과 가정으로) 두렵고,

하루하루 (이 치열함과 그 고뇌를 어디 토로할 수도 없고) 외롭다.

→ (369페이지) 다섯 번째 가치투자자, Caesar 편

목 차

독자들에게

첫 번째 가치투자자, 이호승의 이야기

- 1장. 가치투자 이전과 이후의 나
- 2장. 나의 가치투자 목적과 가치투자에 대한 생각
- 3장. 내 투자원칙, 종목과 운용전략, 수익률
- 4장. 나만의 성공종목들과 요인
- 5장. 나만의 실패종목들과 반성
- 6장. 내 투자지식의 밑바탕, 어떻게 공부했나?
- 7장. 내 투자인생의 위기와 기회
- 8장.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하고픈 말과 조언
- 9장. 나의 현실적인 미래 소망

두 번째 가치투자자, 73트랜서퍼의 이야기

- 1장. 오랜 시간 먼 거리를 돌아오다
- 2장. 투자의 2막을 열다
- 3장.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는 원칙
- 4장. 업종 사이클에 맞서다
- 5장. 투자와 생활은 하나
- 6장. 나의 방법론
- 7장. 본업과 투자사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세 번째 가치투자자, 김서진의 이야기

- 1장. 주식투자, 21세기 대한민국과 자본주의
- 2장. 주식투자, 첫걸음
- 3장. 주식투자, 배움과 또 배움, 그리고 노력
- 4장. 주식투자, 어떻게?
- 5장. 주식투자, 실전 투자와 손익
- 6장. 주식투자, 실전 투기와 손익
- 7장. 주식투자, 가치투자!
- 8장. 주식투자, 위험과 기회
- 9장. 주식투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10장. 주식투자, 가치와 진리

네 번째 가치투자자, 성민우의 이야기

- 1장. 가치투자에 대한 소고(小考)
- 2장. 무엇을 향한 투자인가
- 3장. 투자법, 정답은 없어도 오답은 있다.
- 4장. 다양한 투자 성공 사례
- 5장.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 - 약간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다
- 6장. 투자 공부란?
- 7장. 마치며

다섯 번째 가치투자자, Caesar의 이야기

Prologue. 나는 이 글을 써도 되나?

1장. 가치투자 前 VS 後, 나의 변화와 가치투자 목적은?

2장. 나의 가치투자 원칙, 종목선정 기준, 운용전략, 목표수익률은?

3장. 위 과정을 밟은 결과는? 성공·실패 종목들, 성공과 실패 분석 및 대응방안?

4장. 바로 핵심으로!!! 위 투자결과를 얻기 위한 그간 노력과정은 어떻게 되나?

5장. 투자과정 중 위기와 기회는 없었나?

6장. 주변 개인투자자들에게 하고픈 말은?

7장. 앞으로 현실적 미래소망은?

Epilogue. 가치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후회는 없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공저자소개 : 이호승, 73트랜서퍼, 김서진, 성민우, 석준식

▶저자 김서진 :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투자 경력은 4년이다. 자산관리사, 신용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국제투자분석사 등 각종 금융 자격증을 갖고 있다.

▶저자 석준식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계란 한판 이상의 보통 남성으로, 망중환(忙中閑)에는 미술관·박물관 전시회를 살펴보는 취미가 있다. 현재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현명한 가치투자를 병행하면서 즐겁게 경제적 자유와 기부를 꿈꾸고 또 이루어나가는 중이다.

▶저자 성민우 : 저자는 투자가 삶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하는 20대 청년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 우연히 시작한 투자에 흥미를 느껴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실전 투자 경험을 살려 대학생 연합 가치투자동아리(SURI)에서 교육부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대신증권 투자대회, 삼성증권 투자대회 등에 입상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상 등 다수 상을 받았다. 투자를 통해 경제적 독립과 더불어 사유의 각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저자는 지금도 관심 받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종목을 발굴해 가치를 인정받을 때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며, 투자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에 감사하며 매일 아침을 맞는다.

▶저자 이호승 : 가치투자를 실천하는 개인투자자이면서, 가치투자 지식을 사업에 활용 중인 ㈜토닥 부사장 및 기술이사. 저자는 가치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주식 투자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식형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의 창업멤버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에서 가치 투자 공부를 할 때 배운 지식들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현재 가치투자 방법을 통하여 주식을 재테크의 일환으로 활용하면서 창업한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다.

▶저자 73트랜서퍼 : 저자는 스스로를 장기간 트랙 레코드를 보여줄 만큼 성공한 투자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설명해 줄 만큼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투자원칙을 확립한 상태도 아니라고 겸허하게 말한다. 하지만 만 10년을 넘겨 투자해오고 있고 가치투자를 실행한 지 4년이 지났으며, 과거의 부족한 투자철학이나 좋지 못한 투자습관을 버리고 투자엔진을 조금씩 개선하는 가운데 현재의 길을 확신하고 있는 한 사람의 현명한 가치투자자임에는 틀림없다. SI업무를 20년 넘게 수행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업종의 사람들이나 기업을 접할 기회가 그다지 없었던 저자에게, 투자라는 또 하나의 직업은 자신의 생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여러 업종의 우량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의미심장한 직업이다.